

# 종파 초월·재가중심 생활불교가 특색

## 50년된 서구불교 변화 정리

영국의 한 불자 작가가 1960년대부터 현재까지 50년간 서구불교와 불자들의 변화를 10개의 항목으로 조망해 주목한다.

영 '가디언'(www.guardian.co.uk)지가 3월 16일 <Gautama Buddha: the Life and Teachings of the Awakened One(고타마 붓다: 삶과 깨달음의 가르침)>의 베스트셀러 작가 비스하바파니 블롬필드(Vishvapani Blomfield·사진)의 글을 게재하고, 불교가 서구에 알려지기 시작한 1960년대 이후부터 서구불교와 불자의 변화를 정리했다.

영국의 불교공동체 '삼보 불교회(Tiratna Buddhist Order)' 전문위원이자 <The Tiratna(삼보)>지의 편집장인 비스하바파니 블롬필드는 BBC 라디오 프로그램인 'Thought for the Day'의 고정 논평자로도 활동하고 있다. '가디언'지의 기사를 발표했다.

불교가 서구에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1960년대. 이후 불교는 기존 서구 문화의 패러다임과 반하여 거칠게 자신의 영역을 넓혀갔다. 그렇다면 우리(서구인)가 지난 50년간 불교로부터 배운 것은 무엇일까?

① 깨달음이 전부 아니다 : 불교가 대중화의 첫 발을 내딛을 1960년대 당시, 불교에 뛰어난 수많은 사람들은 불교의 궁극적인 최고의 경향으로 열반(nirvana)을 꼽았다. 그러나 10년 후, 서구 불자들은 크고 신비로운 경험보다는 '성격과 행동을 고치고 다지는 데(reshaping character and behaviour)' 서 불교의 가치를 찾기 시작했다. 젊은 불자들은 신비주의보다는 사회를 개선하고 사회에 공헌하는 일에 더욱 관심

을 쏟고 있다.

② 출가자에 주목하지 않는다 : 아시아 대부분의 나라에서 출가자는 수행과 공부에 매진하는 전문인(the real practitioners)이다. 또한 재가자들은 그들을 적극 돕고 있다. 그러나 현대 서구 사회에서 출가자와 재가자의 구별은 맞지 않고, 더욱이 서구의

### 영 작가, '가디언'지에 기고

### 불교 유입 후 사회 변화 관찰

### '깨달음 전부 아니다' 등 10가지

### 과파 추종과 깨달음 관계 등 과재

사원의 수는 비교적 적다. 따라서 재가자 서구불교계에서 더 큰 의미를 가지며. 다양한 불교 운동에도 적응하는 힘을 실고 있다.

③ 티베트불교는 긍정과 부정의 면을 가지고 있다 : 티베트 스님이 처음 이곳에 온 1970년대 당시, 그들은 서구인들의 '이상향의 환상(Shangri-La fantasies)'을 충족시켜주는 듯 보였다. 그러나 그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인) 지혜와 영감(inspiration)과 더불어 '종파 분쟁' '탄트라 수행' '전통만을 고수하는 보수성' 등도 가져왔다. 서구인들은 티베트불교에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있지만, 한편으로 티베트불교의 어두운 면에도 주목하고 있다.

④ 서로 다른 종파와 교리가 공존하고 있다 : 대부분의 아시아 불교 지도자들은 서구의 나라에 그들의 교리를 가르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다. 그러나 서구 불자들의 일반적인 요구와 모든 불교 전통에 대한 탐구로 인해 불교 종파의 경계는 허물어지고 있다. 또한 새롭게 등장한 서



구 불자들은 본질적으로 (불교의) 비(非)종파성에 주목하고 있다.

⑤ 서구인들은 (불교가) 그들에게 주는 것보다는 스스로 (불교를) 찾고 있다 : 서구의 불교는 범용이나 전승 그리고 (부처님) 가르침의 순수성과 같은 불교 담론을 지키기 위해 출가자의 의지뿐만 아니라 재가자의 요구에도 응하고 있다.

⑥ 불교와 서구가 만난 곳에 '마음 챙김'이 있다 : '마음 챙김 수행(mindfulness practices)'은 정신 건강을 위한 치료에서부터 외식(eating-out)에 이르기까지 모든 곳에 적용되고 있으며, 우리(서구인)는 지금 '마음 챙김 붐(mindfulness boom)'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현상은 불교의 핵심이 현대 생활의 내면을 비추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또한 1960년대 이후 서구의 불교에서 가장 큰 발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앞으로 50년간 서구불교의 모습이 될 것이다.

⑦ 그러나 마음 챙김만이 불교와 서구의

접점은 아니다 : 마음 챙김 운동(The mindfulness movement)은 서구의 새로운 불교로 과대 포장되어 있고, 서구인을 들뜨게 하고 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만약 그 길(마음 챙김)만을 고집하지 않는다면, (서구인들은) 불교를 배우고 실천하는데 더 많은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서구 문명에 대한 불교의 영향은 예술, 사회 운동, 환경주의, 심리 요법 분야와 의사나 변호사와 같은 전문직 종사자의 삶에서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⑧ 서구인들도 명상을 할 수 있고 깨달음도 얻을 수 있다 : 수십 년간 수행의 끈을 놓지 않았던 수많은 서구의 불자들은 이제 그들 스스로 가르치고 또 배울 수 있다. 즉, 서구의 불자들은 분명 부처님의 가르침을 스스로 실천할 수 있고, 그들 자신은 서구 불교의 미래의 동량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⑨ 번뇌로 얼룩진 삶은 사라지지 않는다 : 서구의 불자들이 금욕적인 삶을 소중히 여기더라도 스캔들과 번뇌로 얼룩진 삶에 대한 그들의 이야기는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⑩ 또한 우리는 아직까지 서구불교가 세속의 길을 갈지 아니면 종교의 길을 갈지 단정할 수 없다 : 줄리안 배기니(Julian Baggini)의 말처럼, '성장 운동'은 환생과 카르마와 같은 불교의 미신적 요소를 과학과 비교해 떼어내려고 하고, 불교의 세속화를 정제하려고 한다. 그것은 우리(서구인)에게 한 가지 큰 문제를 남긴다. '과학과 과학을 추종한다는 것이 깨달음을 버린다는 뜻인가?' 또한 '불교는 서구를 시험하는 대체 권력(alternative source of authority)인가?'

오종욱 편집위원

## 불교윤리학 분야 개척자

### 세계의 불교학자(12)

#### 피터 하비 英 샌더랜드대 교수



빨리어 본 경전은 부처님 당시의 원음을 잘 살리고 있다는 점에서 각광받고 있다. 서구열강에 의해 인도 등 아시아 문화 연구가 진행되고, 팔리경전협회(Pali Text Society) 등에 의한 팔리 문헌 연구가 심도 있게 진행되고 있는 것도 빨리어 분야가 전 세계적으로 유통되는 이유 가운데 하나이다. 그러나 오늘날 빨리 문헌 연구는 어느 문헌 연구와 마찬가지로 현실과의 괴리 등이 지목되며 비판받고 있다.

영 샌더랜드대 교수 피터 하비(Peter Harvey) 교수는 빨리 문헌 연구를 통해 불교윤리학(Buddhist Ethics)이란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고 있는 대표적인 학자이다. 뿐만 아니라 그는 자신을 테라와다 불교도라고 말하는 불교신자이기도 하다. 영국을 중심으로 불교윤리학 분야에서 활동하는 학자로는 피터하비 교수 외에도 데미안 키온(Demian Keown)·이안 해리스(Ian Harris) 교수 등이 있다.

'불교윤리학' 용어는 최근까지도 생소했으나 안락사, 생명복제 등 여러 이슈에서 불교적 견해가 요구되면서 대중화·중요시되고 있다. 불교윤리학의 학문적 완성성은 고대 문헌의 현대적 이해라는 측면에서, 특히 2500여 년 전 부처님 말씀이 오늘날 우리 사회에 어떻게 이해되고 받아들여져야 하는가라는 관점에서 주목할 만한 일이다.

피터하비 교수는 맨체스터대학을 다니며 사마타(Samatha) 명상그룹을 통해 불교를 만났다. 사마타 명상은 1962년 태국인 승려 나이 부만(Nai Boonman)에 의해 영국에 소개된 단체로 맨체스터대학 불교 학생회를 통해 영국의 지식인들에게 본격적으로 알려졌다.

피터하비는 1976년부터 사마타 명상그룹의 명상지도사로서 활동하며 랭카스터대학에서 니니안스마트(Ninian Smart)를 지도교수로 비교종교학 관점에서 불교를 연구했다.

영국의 불교학 연구 조류는 크게 둘로 나뉜다. 그 첫째가 옥스퍼드 캠브리지 중심의 문헌학적 연구 조류로 고전 문헌의 엄밀한 해석에 치중한다. 두 번째가 랭카스터 중심의 비교종교학적 조류이다. 비교종교학적 연구는 다양한 종교현상에 주목해 이를 비교·연구하는 방법이다.

피터하비 교수는 랭카스터식 연구가 옥스퍼드로부터 비판받는 문헌학적 분석이 결여됐다는 지적을 자신만의 탄탄한 문헌학적 능력을 통해 불식시킨 학자이다. 즉, 다양한 종교현상의 이해를 문헌학적 해석 능력으로 이론화시키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그 예가 피터하비 교수가 2000년 캠브리지대학 출판부에서 발행한 <불교윤리학입문(An Introduction to Buddhist Ethics)>이다. 한국에서는 동국대 허남결 교수가 번역·출간했다.

책에는 자살과 안락사, 낙태와 피임, 여성문제, 유희와 행위, 동성애, 전쟁과 평화, 시장과 경제, 비윤리적 총동의 기원 등 현대사회의 첨예한 윤리적 문제들이 불교·윤리적 시각으로 풀이돼 있다.

이 책은 불교학자뿐만 아니라 일반 독자에게도 대상으로 하는 대중서이다. 저자 피터하비 교수는 불교학 및 윤리학에

### 니니안스마트 지도 통해

### 빨리문헌연구·비교종교학 접목

### 테라와다 불교도로 수행생활

### 경전근거 현대문제 해법 제시

대한 사전지식이 없는 독자를 전제로 서술하고 있다.

일반적인 불교윤리 연구서들이 단순히 불교에서 어떤 부분을 권장하고, 어떤 부분을 금지하고 있다는 식의 소개에 그치거나, 교단 내부의 지역적인 문제에 치중하고 있다. 그러나 피터하비 교수의 책은 다르다. 기존 윤리연구에 대한 반성에서 출발한다.

피터하비 교수는 빨리 경전과 윤리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복잡한 현실에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해법을 전한다.

피터하비 교수의 불교윤리학은 경전에서 보이는 다양한 실례들이 자살·생명복제·전쟁·평화 등 인류가 처해 있는 고통스러운 현실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고, 어떤 해결책을 제시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한 가능성을 보여주는 학문이다.

조동섭 기자

cetana@hyunbul.com

# 美 플로리다 윈트파크서 제3회 불교영화제

## Chenrezig Project 주최... 'Buddha's Lost Children' 등 14편 상영



美 플로리다주 남동쪽 오렌지카운티의 교외 도시 윈트파크(Winter Park)에서 불교영화제가 개최됐다. 인터넷 매체 옵서버(Observer / www.wpmobserver.com)에 따르면, 윈트파크의 대표적 이 티베트불교공동체인 Chenrezig Project가 3월 23일-24일, 3월 30일-31일 각각 두 번에 걸쳐 제3회 '플로

리다 달마 영화제(Florida Dharma Film Festival, 이하 FLharma)를 개최했다.

"플로리다 달마 영화제는 지역 주민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영상으로 보여주자는 Chenrezig Project의 포교 의지가 담긴 자리"라고 설명한 마크 윈우드(Mark Winwood·사진, FLharma 총괄진행)는 "이번 영화제에 선보인 14편의 영화는 관람객들에게 '행복한 삶이란 무엇인가', '자비와 지혜가 가든 찬 삶의 의미' 등을 생각할 수 있는 여유를 주었을 것"이라고 강조

하고 "티베트불교의 아름다움, 영성, 감성 등을 지역 주민들과 나누고 소통해 티베트 불교를 더 알렸다"고 평가했다.

또한 마크 윈우드는 "올해 영화제에서는 보다 많은 지역 주민의 참여를 이끌기 위해 영화제 모든 행사를 무료로 진행했다"고 덧붙였다.

제3회 FLharma에서는 16대 칼마파 라마의 일대기를 다룬 <The Lion's Roar(사자의 호호)>, 여객기 추락사고 생존자의 성격 변화를 추적한 <Fearless(대담 무쌍

한)>, 달라이 라마와 1시간 동안 자유롭게 대화를 나눌 수 있다는 전제 하에 10가지 질문을 소재로 한 <10 Questions for the Dalai Lama(달라이 라마에게 10가지 질문을)>, 태국의 골든 트라이앵글(Golden Triangle) 지역에 살고 있는 스님과 굶주리고 병든 아이들의 이야기를 영상으로 풀어낸 <Buddha's Lost Children(부처님의 길 잃은 아이들)>, 법정에서 피고인의 유죄나 무죄를 판단해야 하는 배심원의 갈등을 불교의 눈으로 조망한 <12 Angry Men(화가 난 12명의 사람들)>, 수행자와 유명 요리사가 함께 음식을 만들며 진실한 삶의 길을 제시하는 <How to Cook Your Life> 등을 비롯해 14편의 영화가 윈드홀스 극장(Wind Horse Theatre)과 조합 교회(Congregational Church)에서 각각 상영됐다.

오종욱 편집위원

### ※한지백팔사경 5종※

**26호 신묘장구대다라니(한글)**

**27호 반야심경(한문)**

**29호 줌부다라니(한글)**

**30호 반야심경(한글)**

**28호 대불정능엄신주(한글)**

※ 26, 27, 29호, 30호는 사경책 1권을 사경하시면 108번 사경이 됩니다. 단, 내용이 많은 28호 능엄신주사경책은 4장 1조로 구성되어 책 1권에 27회 사경할 수 있으므로 총 4권을 사경하셔야 108번 사경이 됩니다.

▶ 단권 14,000원(10권 이상)    ▶ 표지: 레저크지 옵셋 4"    ▶ 크 기: 435mm×300mm

### 종이영가옷 / 예수재함 / 종이신발

**A형-남**    정가 1,500원    ▶ 할인가 1,200 (100명 이상)

**A형-여**    정가 1,300원    ▶ 할인가 1,000 (100명 이상)

**동남**    정가 1,000원    ▶ 할인가 800 (100명 이상)

**동녀**    정가 900원    ▶ 할인가 700 (100명 이상)

**영가천도다라니**    정가 1,000원    ▶ 할인가 800 (200명 이상)

**예수재함A (50개 1박스)**    ▶ 할인가 50,000 (50개 이상)

**예수재함B (50개 1박스)**    ▶ 할인가 60,000 (50개 이상)

**금강경탑다라니**    정가 250원    ▶ 할인가 180 (600개 이상)

**영가/방수등표대**    ▶ 단권 35,000원

- 비닐+등표+집게
- 9.6cm×22cm
- 100매

### 믿음과 정직의 산실!

그곳은 동진기획 · 붓다쇼핑

연 등 할인가

• 공단등(6cm) @2,500원 (50개 이상)	• 비닐만월등(100개) 160,000원 (1Box)
• 공단등(8cm) @3,000원 (50개 이상)	• 비닐만월등(국산) 170,000원 (1Box)
• 공단등(10.5cm) @5,000원 (24개 이상)	• 연화만월등(100개) 240,000원 (1Box)
• 공단등(13cm) @10,000원 (12개 이상)	• 영가만월등(100개) 170,000원 (1Box)
• 공단등(20cm) @35,000원 (4개 이상)	• 장만월등(100개) 200,000원 (1Box)
• 바림등(6cm) @2,700원 (50개 이상)	• 청사초롱등(100개) 270,000원 (1Box)
• 바림등(8cm) @3,300원 (50개 이상)	• 비단 접 등(10.5cm) 340,000원(100개)
• 바림등(10.5cm) @6,000원 (24개 이상)	• 비단 접 등(12cm) 350,000원(100개)
• 바림등(13cm) @12,000원 (12개 이상)	• 종이주름등(200개) 160,000원 (1Box)
• 바림등(20cm) @35,000원 (4개 이상)	
• 공단·바림 칼라등(30cm) @90,000원	

**방수전선(한줄50구)**  
23cm / 25cm / 30cm | 50cm 1m / 2m  
5줄 이상 @ 65,000원 | 기타 주문 생산

<b>LED전구 A형</b> 110,000원(국산) 1BOX: 50개    ▶ 색상: 옅은색/주황색	<b>전구(5W/8W)</b> @ 450원 (국산) 1BOX: 100개    ▶ 제조사: 동진전구	<b>봉축카드[21종]</b> @ 300원 (1,000장 이상)    ▶ 구성: 봉축, 내지 인쇄포함    ▶ 내지: 18.5×25.6cm    ▶ 봉투: 19×13cm	<b>연등(일반/바림/신칼라(천))</b> 5,500원 / 7,000원 / 25,000원    ▶ 연등/신등/노필/주황    ▶ 빨강/녹색/흰색	<b>집게부착PVC등표</b> 20,000원 (100개)    ▶ 크기: 8.5×21cm
---	--	--	--	---